



‘나도 모르게 개설되는 계좌’ 사전에 차단!

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

- ♥ 현재 거래 중인 영업점 직접 방문 / 은행 및 어카운트인포 앱 이용
- ♥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(2024년 8월)에 이은 피해예방체계 강화
- ♥ 은행, 저축은행, 상호금융, 우정사업본부 등 3,613개사 참여

“나도 모르게 개설되는 계좌”

이제는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.

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한 『비대면 계좌 개설 안심차단』
서비스시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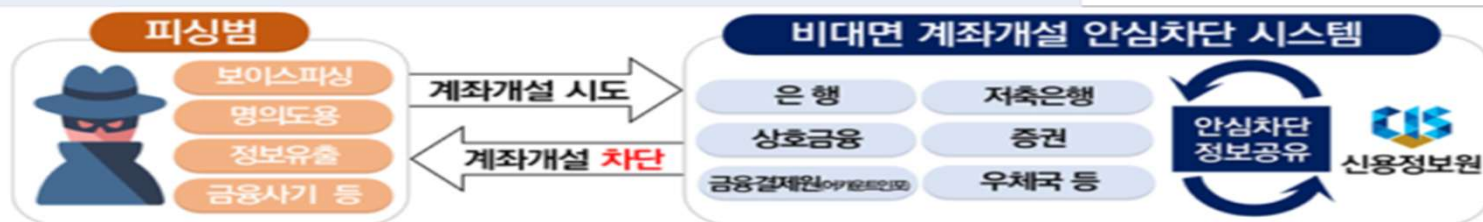
거래중인 금융회사를 통해 신청

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시스템

거래은행을 직접 방문하거나 은행 모바일 및 금융결제원의 비대면 신청채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



<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시스템 개요>



▶ 비대면 계좌 개설 안심차단 서비스의 주요내용 ◀

■ 은행, 상호금융 등 3,613개 금융회사 참여

『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』 서비스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수시입출금식 계좌가 비대면으로 신규 개설되지 않도록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. 해당 서비스를 가입하면, 가입 즉시 한국신용정보원에 안심차단 등록되고 금융권의 신규 수시입출금식 계좌 개설 거래가 실시간 차단되어, 본인도 모르는 사이 개설된 계좌로 인한 금전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된다.

■ 거래중인 금융회사를 통해 신청

이용자가 등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현재 거래중인 은행, 저축은행, 농협, 수협, 우체국등을 ①직접 방문하거나 ② 은행(모바일,인터넷뱅킹) 및 금융결제원(어카운트 인포)의 비대면 신청 채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.

■ 신청내역을 주기적으로 통지

금융회사는 이용자에게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신청내역을 신청 및 해제 시에 통지할 뿐만 아니라, 신청 사실을 반기 1회에 문자,이메일 등으로 주기적으로 통지함으로써 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지원하게 된다.

- 등 서비스의 신청내역은 한국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본인신용정보열람서비스 홈페이지(www.credit4u.or.kr)를 통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.

[주요 피해 사례]

■ A씨는 신청하지 않은 카드가 배송된다는 전화(문자)등에 속아 범죄조직이 알려준 악성(원격제어)앱을 설치하였고, 범죄조직은 앱을 통해 탈취한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비대면 예금계좌를 개설하고,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받기 위한 대포통장으로 사용

■ B씨는 아들을 사칭한 사기범의 연락을 받고 문자 링크를 눌러 설치된 악성 앱을 통해 휴대전화 속 개인정보를 탈취당하였고, 범죄 조직은 탈취한 정보를 이용하여 알뜰폰을 개설한 뒤, 위조한 신분증으로 알뜰폰 본인인증을 통해 ★★ 인터넷은행에서 B씨 몰래 계좌를 개설하고 수천만원을 이체하여 편취함.

